시 론

우린 왜 영화 '왕사남'에 열광하는가

김 선 기
남도인문학연구원장·문학박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한 달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놀라울 일이다. 코미디와 풍자의 형식을 빌린 영화라서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웃음의 밑바닥엔 권력과 인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묵직한 성찰이 흐른다. 여기에 장항준 감독 특유의 유머와 아이러니는 이러한 질문을 날카롭게 드러내기보다 일상의 농담처럼 스며들게 한 점도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 요인이다.

영화의 중심에는 '왕'이 있지만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은 왕이 아니라, 그 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 온 권력 서사의 관습을 조용히 비틀어 놓는다. 왕의 위엄이나 정치적 사건보다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권력 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감정과 두려움, 그리고 일상 속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이다.

이 영화의 웃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그 현실을 비틀어 바라보는 하나의 인문적 태도에 가깝다. 왕이 있는 자리는 긴장과 침묵이 흐르기 마련이다. 권력은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는 그 무거움을 슬며시 흔든다.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 예상치 못한 농담, 권위의 틈에서 새어 나오는 인간적인 순간들이 관객을 웃게 만든다.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얼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

관객들이 이 영화에 열광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사람들은 거대한 권력의 이야기보다 그 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에서 더 깊은 공감을 발견한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과 제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조직안에서, 사회 안에서, 때로는 정치와 미디어의 흐름 속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 거대한 구조 속에서도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일상의 웃음과 인간적인 관계들이다.

영화는 바로 그 삶의 감각을 건드린다. 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 그림자를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대신 그 속에서도 웃고 떠들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권력의 무게와 삶의 가벼움이 교차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관객은 묘한 위안을 발견한다.

오늘의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이야기' 속에 놓여 있다. 정치의 갈등과 경제의 불안, 사회적 분열이 매일 뉴스의 제목을 장식한다. 말은 넘쳐나지만, 마음이 쉬어갈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거대한 영웅 서사보다 권력의 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에 더 깊이 반응한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흥행 수치로만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감정에 공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사람들은 권력의 장엄함보다 그 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소소한 진실을 보고 싶어 한다. 거대한 역사보다 일상의 웃음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인문학적인 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매력은 결국 인간에 대한 믿음에 있다. 권력은 언제나 거대하고 무겁지만, 인간의 삶은 그보다 훨씬 작고 가볍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그 작고 가벼운 순간들이다. 함께 웃는 시간, 권위를 슬쩍 비틀어 보는 농담,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일상의 감정들 말이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왕'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곁에서 끝내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웃음이다. 어쩌면 관객들이 이 영화에 열광한 이유도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자치칼럼

전남광주특별시의 K-문화관광 가능성 고싸움축제

이 용 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광주마을학교 교장

한국의 대표적 정월보름 세시 민속축제인 고싸움 축제가 막을 내렸다. 지난 달 28일부터 3월2일까지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43회 축제는 3일 대보름 당산제와 5일 당산제 삼일굿까지 엿새 동안 이어지고 마무리됐다. 매년 눈보라와 매서운 찬바람의 궂은 날씨로 행사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는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와 3·1절 연휴까지 더해져 모처럼 가족 단위 나들이객 수만 명이 참여해 병오년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했다. 우리나라 축제 대부분이 화창한 봄과 가을에 몰려 있으나, 고싸움 축제는 음력 대보름인 늦은 겨울 입춘 길목에 열리는 광주·전남의 유일한 전통 세시 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43년 동안 보존하고 이어오고 있다.

광주칠석고싸움놀이는 1970년 광주시의 유일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8년 세계수영대회 등에서 한국의 대표 민속놀이로 시연돼 우리 민족문화의 위대함과 한민족의 패기를 세계인들에게 감명 깊게 보여 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다. 고싸움축제는 40여 년 이어오는 동안 초기의 고싸움놀이 시연 중심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잊혀 가는 우리의 다양한 전통 놀이를 개발 재현하고, 어린이와 어른들까지 즐겁게 체험하고 학습하는 가족 단위 전통 세시 놀이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도 전통 국악 민요공연과 줄타기, 탈춤, 연날리기와 함께 골목 고싸움, 지게 짐 나르기, 오곡밥 부럼나누기, 고동차 타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우리 옛 놀이의 신선한 재미를, 부모들에게는 추억의 골목 놀이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새해 가족 소망을 적어 태워 날리는 거대한 달집태우기와 화려한 불꽃놀이는 쥐불놀이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마을 수호신인 800년 은행나무를 모시는 당산제는 전래 마을의례와 공동체 제향의식으로 전통마을공동체가 지켜온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이러한 칠석고싸움축제의 변화된 콘텐츠는 전통 세시 민속놀이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 계승하면서도 차별화된 볼거리를 새롭게 창출해 K-문화시대의 가능성과 효능감을 증명해 주는 놀라운 시도이다. 이는 노래자랑과 음식장터로 천편일률적인 판박이 지역축제와는 차별화된 특장점을 지니고 있어, 외국 관광객 3천만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K-관광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유네스코 등재, 축제 추진체계 정비, 주차장 등 교통대책, 축제 예산의 확충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올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AI 선도 등 경제개발과 함께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이 천년 동안 공유한 향토 문화의 정체성과 쌀 농업문화에 기초한 전통적 문화유산을 K-문화관광으로 승화하는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 시장이 '문화가 돈이고 경쟁력이다'는 인식과 함께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과 강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전문적 고증으로 문화 자원을 재발견해석해 세계인의 문화적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K-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20조 지원 중 상당액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고싸움놀이와 같은 광주전남의 세계적 문화유산이 K-문화관광을 선도하는 콘텐츠로 거듭나는 '전남광주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가길 기대한다.

기 고

지방정부 대표 선출…"마을 공화국이 답이다"

서 정 열
(사)남도문화연구소 이사장

선거철이 되면 온 나라가 들끓는다. 그런데 그 열기의 방향이 문제다. 너도나도 '내 편'을 뽑겠다며 달려드는 구도 속에서 지역 대표 선출의 기준은 어느새 '얼마나 잘 싸워주느냐'로 수렴되고 만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판, 365일 아귀다툼으로 허송세월하는 나라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이익, 즉 온 나라 사람이 함께 나서 합심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새마을운동이나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자발적 참여의 열기가 들불처럼 번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소명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의 전환이다.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제는 실제 제도로 뿌리내려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스위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위스는 국가 재정의 3분의1을 기초 마을 단위에 무조건 배분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우리 재정 규모로 환산하면 3천여개 면 단위 각각에 매년 600억-700억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불과 3-4년이면 그 마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옆 동네는 마을기업을 일궈 날로 부강해지는데, 분열과 갈라먹기에 매몰됐던 마을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겠는가. 자연스럽게 분발과 자각이 일어날 것이다. 자발적으로 일하는 열기가 온 나라를 달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을 공화국'의 이상이다.

5극3특 지방분권화 국가 전략을 통해 모든 지방정부가 중앙을 거치지 않고 외국과도 직접 교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탁상의 이론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전환이다.

전남광주특별시장 A후보는 297개 자치마을을 축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구상을 밝혀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여부는 유권자의 몫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하느냐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마을 공화국은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현실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5년만에 꺾인 사교육비, 서민경제 고물가 타격 반증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덮쳐 서민들의 생활 형편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갈수록 쪼그라든 수입에 사교육비 지출도 줄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41만3천원)보다 11.0%(4만1천원) 감소한 수치다. 전남의 경우는 30만9천원으로 전년(32만원)에 비해 6.7%(2만원) 하락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광주가 71.7%로 6.5%포인트(p) 떨어졌다. 전남은 68.1%였다.

전남 사교육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울(66만3천원)과 비교하면 약 2.1배의 차이를 보인다. 광주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2.6%)을 비롯한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천억원(5.7%) 줄었다.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오다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반전됐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 규모는 물론 참여율도 여전히 높다. 지역과 계층 간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번 통계는 경제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유지 또는 증가하며 저소득층에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섰던 것과 달라진 결과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필수인 식료품·비주류음료, 월세·난방비 등은 소폭 증감을 반복했으나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과 관계가 없었다. 해서 가계의 자금 여력이 바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이의 장래에 대한 투자마저 축소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반증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역점 추진해온 초등 돌봄·방과후학교, 교육방송(EBS)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들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교원단체들은 소득 정체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격차 확대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서민 경제에 고물가의 압박이 직접 타격을 미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광주 평동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고도화 추진 환영

광주시가 평동일반산단 내 용접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산업통상부에 신청한다. 용접·접합은 지역 대표인 미래차와 가전산업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이번에 금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한다.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기반 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을 핵심으로 기업의 디지털 역량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반면에 친환경표면처리 특화단지는 해제키로 했다.

뿌리산업은 인공지능(AI), 자동차, 전자 등 전방산업의 품질을 좌우하는 금형, 용접, 사출·프레스 등 14대 기반을 포함하는 후방산업이다. 하지만 관련 기업이 전체 제조업체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탓에 영세하고, 노동집약적 구조 때문에 인력 문제와 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형 설계 인원이 최근 5년 사이 514명에서 190명으로 6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의 물결, AI를 중심으로 한 대전환의 흐름 속에 뿌리산업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광주시가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 만들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이유다. 시는 평동 특화단지의 고도화가 올해 상반기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한다. 혁신 생태계를 지속하는 등 발전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 숙련자 양성은 물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며 해외판로 개척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하겠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전업계의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대안도 아울러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인력이 투입되는 단순 반복 공정이 많아 근로기피 등으로 인해 기업체에서 구인난을 호소하는 만큼 제조로봇 도입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여전히 뿌리산업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침을 여는 詩

아내의 거짓말

이성룡

봄날 늦은 아침
시장에 다녀온 아내가
볼록한 시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시장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
푸른 고등어 몇 마리와
꼬막 주꾸미 콩나물 한 움큼
무와 파를 무작위로 꺼내면서
무슨 놈의 시장이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연신 구시렁거린다
시장은 도대체
내 착한 아내에게 무엇을 숨겼던 것일까
(시집 '오래된 부부', 밥북, 2025)

[시의 눈]

시장, 다닥다닥 좁은 가게가 즐비하고, 비좁은 거리에 장 보러 나온 장객들로 부산한 풍경이 그려진다. 기웃기웃 손님들끼리 부딪히고 발등 밟고 밟히는 일이 허다히 일어나는. 물건 홍보, 호객 및 흥정하는 소리로 떠들썩하는 이 공간은 살아있음을. 생명력의 꿈틀거림을 확인하는 장소로 기억된다. 동네 사람이나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정감 넘치는 대화와 정보도 나눈다. 시장은 그래서 플랫폼 기능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먹거리·볼거리도 풍부한 삶의 공간이다. 손님의 발길을 불러모으기 위해 콘텐츠를 잘 구비해야 한다. 싸고 품질 좋은 믿을 만한 상품들을 진열해 구매력을 북돋워야 한다. 인간의 냄새가 자욱한 시장은 '감성여행에 딱이다' 싶은 그런 공간이다. '시장에 다녀온 아내가/ 볼록한 시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푸념을 늘어놓는다'의 언술에는 일종의 모순이 묻어있다. 장바구니가 제법 볼록하도록 장을 봐왔으면서 무슨 푸념일까? 고등어, 꼬막, 주꾸미, 여러 채소류까지 곁들여 사왔으면서. '무슨 놈의 시장이/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연신 구시렁거린다'의 장면은 무얼 말함인가? 입맛 까다로운 짝꿍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연막작전은 아닐까. 착한 아내에게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숨겼는가 되묻는 화자의 모른 척 대응 또한 해학적이다. '부창부수(夫唱婦隨)'다. 〈윤삼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瓚皓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